



2015년 4월 24일과 25일 인민군 훈련일꾼 대회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왼쪽 원안)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가운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 극 치닫는 김정은 공포정치... 잇단 '피의 숙청'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반역죄'로 고사총 총살

### 집권 이후 간부 70여명 처형...지도력 회의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잇따른 숙청을 통해 북한 지도부 내부에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휘두르고 있는 숙청의 칼날은 일반 주민이나 중간 간부가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국정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들을 겨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 내부 특이동향' 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총살한 간부가 7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민무력부장 총살 등 측근 그룹 대규모 숙청=13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내 군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반역죄로 숙청됐다. 현 무력부장은 군 행사에서 조는 모습이 적발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대꾸한 부분이 '불경', '불충'으로 지적돼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국경원은 보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날 26일자 사진에 현영철 부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하는 자리에서 눈을 내리 깔고 조는 모습을 실었다.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도 건성으로 박수를 치는 등 태도불량과 '1번 동지'로 호칭하며 김 제1위원장에 맞서려고 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현 무력부장은 평양의 강건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무력부장은 북한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꼽히는 군내 실력자였다.

김 제1위원장은 또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을 숙청했다. 모두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그를 보좌한 측근 그룹이다.

◇공포정치 배경과 김정은 회의론 확산=이는 김 제1위원장의 허약한 권력기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4년차를 맞지만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이 외병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갑자기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기반 없이 김정일 체제에서 성장한 권력집단과 시스템에 의존해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내에서 정시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후계자 이전 제대로 된 사회 생활도 못해본 그에게는 정치적 동지나 세력이 없고 오로지 부친 시절의 권력층에 의존해야 했다. 이처럼 권력 기반이 허약하다 보니 간부들에 대한 집중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 국가안전보위부는 고위간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조사하고 재판도 단행하는가 하면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이를 총괄 지휘하며 김정은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제1위원장의 개인적 성격도 공포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는 권력 기반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맛봐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심리상태라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 숙청한 간부들 대부분이 최측근들인데다 자신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했다는 '불경죄'로 숙청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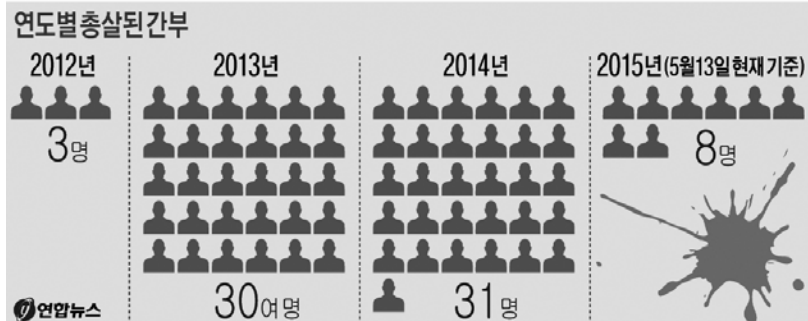
문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무자비한 숙청 행태가 개인의 권위와 자만심을 충족시킬지는 몰라도 권력층의 이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잇따른 숙청과 관련,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집권 숙청 주요 간부

최고위급간부	장성택	이명호	현영철
처형일자	2013.12.12	2012.7.15	2015.5.13(추정)
처형당시 직함	국방위부위원장, 당 행정부장(권력서열2위)	군총참모부총참모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민무력부장
숙청사유	국기전복음모 '장성택우상회' 최고시령관 명령불복, 경제부문 전횡, 부정부패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에 대한 통제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추정	반역죄

직함	숙청·처벌이유	조치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순인공화 건설부진	경질, 일가족과양강도농장원에 배치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대의군사협력관련 김정은에 이견제시	올해 1월 숙청
조영남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과학기술전당 설계 관련 김정은에 이견제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관련 불만 토로	올해 2월 처형
성명 미상	임업성 부상	산림복구사업 관련 과업에 불응	올해 1월 처형
노경준	최고시령부 1여단장	김정은 별장 건설 부진	4개월 감봉(상장-상조), 1여단 해체 및 병력 인민보안부로 이관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비리혐의	비리혐의 조사 ※ 신상변동 여부 추적중



# “북, 바지선에서 미사일 발사 수중발사 사진은 포토샵 합성”

## 美 전문가 “잠수함 진수 몇개월만에 탄도탄 시험 불가능”

북한이 지난 8일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는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군사문제에 정통한 조지프 버뮤데스 '올로스 애널리시스' 선임분석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콜(화상 회선)에서 이같이 밝혔다.

버뮤데스 분석관은 “북한 언론이 공개한 사진자료를 보면 마치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과 같은 인상을 받지만,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에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다”며 “수심 몇 m 아래에 놓인 바지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언론이 잠수함 탄도탄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가 신포 남부 조선소 부두 전경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부두에 정박된 잠수함 바로 옆에 가로 10m×세로 22m 크기의 바지선이 계류돼 있다.

잠수함 쪽대기에는 탄도탄 발사에 쓰이는 높이 9.4m, 넓이 1.7m의 수직발사관이 관찰됐지만 실제로 발사실험에 쓰이지 않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SLBM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버뮤데스 분석관은 “지난해 10월 잠수함을 진수한 북한이 6~7개월 만에 잠수함 탄도탄을 시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수중 발사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현 단계의 북한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바지선에서 탄도탄 발사 실험을 한 것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의 초기 단계에 등장하는 통상적 실험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버뮤데스 분석관은 북한이 공개한 수중발사 사진은 폭발력을 과장하기 위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언론은 지난 9일 북극성이라고 쓰인 미사일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물속에서 솟구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 언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미사일 주변에 화염이 발견되지 않는 데도, 밝은 분홍빛 잔영이 수면 위에 비친다. 사진에는 단지 물과 연기, 수증기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정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필요한 압축가스 사출시스템을 시험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의 시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일본 동북지역 규모 6.8 강진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진 추정...도쿄 등 진동

13일 오전 6시12분께 일본 동호쿠(東北) 지역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8.9도, 동경 142.1도의 미야기(宮城)현 앞 바다며, 진원 깊이는 약 46km로 파악됐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이 지진으로 이와테(岩手)현 내륙 남부에서 진도 5가 넘는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고, 홋카이도(北海道)에서 혼슈 중부에 걸친 넓은 지역에서 진도 1~4의 흔들림이 측정됐다. 도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지만, 지진 해일(쓰나미)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진 영향으로 고속철도인 신칸센(新幹線) 일부 노선이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진앙과 가까운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의 경찰 및 소방 당국에 의하면, 부상자와 물적 피해 관련 정보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또 도쿄전력은 동일본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 해세가와 요헤이(長谷川洋平) 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은 4년전 거대 지진(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1주일 정도 안에 최대 진도 5에 가까운 흔들림을 동반한 여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b>CHANNEL A</b>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b>18</b>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b>20</b>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b>14</b>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b>18</b>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b>16</b>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b>13</b> IPTV <b>18</b>	<b>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b> www.ichannelA.com
--	---	---	------------------------------------	---